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홍기만 목사

(충주호스피스 대표, 한국호스피스협회 대전·충청지회장)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나이고 길은 둘이어서 하염없이 서서 그 중 한 길을 저 멀리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
그 길이 덩불속에서 굽어진 곳까지(...) 먼 훗날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리라!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털 다닌 길을 선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노라고.

Robert Probst의 (가지 않은 길)의 일부분이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큰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목회자가 된 것이요, 둘째는 호스피스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충청북도 증평 출장소(지금은 증평군으로 승격)가 있는 자그마한 시골 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다. 정말 돌이켜보면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모험심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만 해도 호스피스가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한다고 광고했더니 술집 접대부 자매님이 나 같은 호스티스들을 도와주는 교육이냐고 전화가 걸려왔을 정도니 말이다. 특히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초창기에는 개신교보다 천주교 신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왔고 충북 음성 꽃동네로 호스피스 봉사를 다닌 관계로 심지어는 주변 목회자들 까지도 이단(異端)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 그 밖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여기까지 미친 사람처럼 달려왔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오랜 세월 호스피스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기분이다. 사회의 냉대와 편견과 오해는 여전하여, 호스피스 봉사자와 목회자들을 마치 저승사자처럼 대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호스피스 봉사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서 나 자신이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내심을 키웠고, 남을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나 자신의 욕심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 일 중에서 죽음의 문제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죽음 앞에서의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환자과 그 가족들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들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삶과 죽음을 배운다.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다.

또한 무슨 일이든 죽을 각오로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대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죽음 직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사형언도를 받고 풀려난 사람들이나 혹은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못할 질병에서 살아난 것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감옥 안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도 있다. 인간은 생과 사의 갈림길, 즉 절박한 상황에서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모양이다.

나 역시 죽을병에서 살아 나온 경험에 있는 사람이라,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고 약한 자를 고쳐서 쓰시는 위대한 주님을 찬양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 이 생명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해본다. 한국 호스피스협회 산하의 모든 봉사자님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해 본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즉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딤후 6:7-8)